

이교원 조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영애* · 최정민** · 조경진***

*기술사 사무소 이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Lee Kyo-Won's Landscape Design

Seo, Young-Ai* · Choi, Jung-Min** · Zoh, Kyung-Jin***

*ESOO Landscape Architects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ee Kyo-Won's landscape architecture and add to the literature in this field. Also, the current status of and issues in landscape design will be dealt with through the lens of the individual landscape architect's works. By adopting a critical analysis, this study will look closely into the background of his career and ideas regarding landscape design. The inherent nature of his coherent style in landscape design will be listed as follows: total design, design-build systems, experimentation with new kinds of plants and materials, and the pursuit of minimalism. His design domain covers various elements such as paving, street lamps, and clock towers, among others. He was often involved in managing outdoor sculpture and he also provided the total packaging of the design-build systems for most of his landscape projects.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his landscape works can maintain their high end quality; through his craftsmanship, a fine quality of detail was achieved in his landscape design. This tell us the possible options that can be adopted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management or landscape architectural turn-key systems, which differ from the prevailing dual system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However, his own particular system can not be replicated in ordinary situations because contemporary practices require us to coordinate the various stakeholders concern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design. In general, it is fair to say that we can give him the credit for enhancing the status of landscape design as an independent, specialized field.

Key Words: Landscape Architect, Criticism, Total Design, Design-Buil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의 조경 분야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장소의 고유성과 문화가 주요한 가치이자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 분야는 앞으로도

Corresponding author: Young-Ai Seo, ESOO Landscape Architects, 417-10 Daebang-dong, Dongjak-gu, Seoul 156-020, Korea, Tel.: +82-2-812-5813, E-mail: terry116@empal.com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조경은 고유하고 주도적인 흐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였고, 비판적 담론을 구축하는 것도 미진하였다. 활발한 담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조경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디자인 분야의 담론에서 작가론과 작품론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축이다. 특히 작가 연구는 동시대 조경문화의 수준이나 역량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척도가 된다. 조경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며, 작품의 생산과정과 내용, 특성 분석을 통해 설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훈을 얻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 작가에 대한 연구나 비평적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경 작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음스테드(Fredrick Law Olmsted)에 관한 연구(최정민, 1993; 양호정, 2000; 조경진, 2003)와 브라운(Capability Brown)에 관한 연구(방경관 등, 1998)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현대 서구의 조경가들의 작품을 산발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내 조경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조경가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개인의 작품 활동과 작품을 통해 동시대 조경의 단면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조경 작품들은 장소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간혹 조경설계사무소의 작품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작가에게 작품의 크레디트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드문 경우에 속하는 한 사람이 이교원이다. 그의 작품들은 앞서와 같이 통상적인 장소의 명칭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설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교원의 작품'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작업들에서 한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관된 특성을 비교적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면이 이교원 조경을 독특하게 보이게 하는가? 그러한 일관된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동시대 한국 조경의 단층을 해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경작가에 대한 포괄적 조망과 비평적 분석을 통해 조경작품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한국현대조경의 현실 속에 다양한 차원의 이슈를 발견하여 향후 조경분야의 발전과 수준 있는 조경 작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진행

상술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관심과 목적은 그 자체가 이미 비평적 작업으로서의 국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비평적 작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논리체계를 지니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비평이 시대의 관심을 고양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

문이다(배정환, 1993). 이를 통하여 작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비평의 방법론은 관점과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규범적 비평', '해석적 비평', '기술적 비평'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Attoe, W., 1978: 11-108; 강혁, 1984: 59-61). 대체로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거나 혹은 혼합하여 비평 전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비평의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의 관점은 첫째, 이교원의 경력과 성장배경, 성장과 태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비평의 전기 비평(biographical-criticism)에 해당된다. 둘째, 이교원의 조경작품의 생산과 관련된 상황과 배경을 다루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교원 조경의 특성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비평의 맥락 비평(contextual-criticism)에 해당한다. 셋째, 이교원 작품의 특성을 도출하고 현실 조경의 시사점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체계 비평(systematic-criticism)이라는 국면을 갖는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직접 인터뷰, 시공현장 답사, 설계도면 검토 등을 통하여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 자료의 발견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보다 본질적인 현상과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문헌은 그의 설계 방법론과 디자인 원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기고문,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한다. 작가와의 인터뷰는 연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주관적인 오류를 보완하고, 작가의 대체적인 성향, 의식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의도는 매우 다양하고 함축적이어서 작품만을 보고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교원과의 직접 인터뷰¹⁾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작가의 의도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작품 사례연구는 시공된 작품을 답사하고, 설계도면과 스케치 등을 참조하여 관련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작품은 이교원 조경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단면은 식재 설계, 공간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등의 특성들이다. 이교원 조경은 새로운 수종의 과감한 도입과 식재 패턴을 실험하는 것으로 정평이 있다. 따라서 식재 디자인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은 이교원 조경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교원의 공간 디자인 및 시설물 디자인은 정교한 디테일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회자된다. 따라서 그의 공간 디자인과 시설물에서 나타나는 디테일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그의 '독특한 기법(craft)'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독특한 기법이 구축되는 방식과 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작품의 특성과 생산 방식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교원 조경의 형성배경

이교원은 1937년 서울 명륜동에서 태어났다. 1956년에 보성고등학교와 1961년에 연세대학교 상대를 졸업했다. 양복점을 운영하는 아버지로 인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의 서울대 공대 위치에 있던 별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원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후에 장미 재배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미 재배 경험으로 대학 졸업 후 서울여성 교사로 3년간 재직하면서 원예반을 지도하게 된다. 교직을 그만두고 시작한 장미 판매는 주문을 받으면 배달해서 식재까지 해주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정원 조성으로 연결되어 식재와 포장, 펜스 공사까지 하게 된다. 그의 첫 번째 정원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원을 만들기 시작한다. 성공적인 정원공사는 '한영 조원 설계사 두소'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1982년 이원 조경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정원 가운데 자료로 남은 최초의 정원 작품은 1967년에 시공된 성북동 김진영 사장댁이다(이교원, 1999: 그림 1 참조)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4.18, 2006.5.2).

“외국 서적을 참고하여 청계천에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하여 수중등과 노즐을 만들었다. 나름대로 분수와 연못이 있고, 벽돌 포장의 테라스, 반추상 조각까지 갖춘 모던한 스타일의 정원이었다”

이렇게 그의 초기 정원 작품들은 주로 일본 서적을 참고하여 조성된다. 간접 경험을 통한 일본식 조경의 모방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는 아직 학문으로서 조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일본 서적을 통한 조경가로서의 교육과 수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에도 조경가 이교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형적 도식(schemata)이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론된다. 이교원의 조경은 정규 교육 없이 개인적인 열정과 인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설계와 시공이라는 개념이 아직 분화되기 이전²⁾으로, 장인정신(craftmanship)에 입각한 정원 만들기라고 볼 수 있다.

III. 이교원의 작품과 생산방식

이교원 스스로는 그의 작품들을 사정원과 공정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조경은 사적 영역이지만 공개공지 등도 포함하고 있고, 개방된 공간으로 보고 공정원으로 분류하고



그림 1. 1967년 성북동 김진영씨댁 정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가 스스로의 분류체계를 준거로 하여 개인주택 정원과 공동주택 정원을 주택 조경으로 구분하고, 건축의 외부 공간, 광장, 소공원 등은 공공 조경으로 분류하여 이교원 조경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식재 디자인,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같은 단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교원 조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독특한 기법이 구축되는 방식을 검토하여 작품의 특성과 생산 방식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주택 조경

개인주택 정원에서 출발한 이교원은 2000년대 들어서 빌라 등의 공동주택 조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차 대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개인주택 정원은 최초의 주택 정원인 성북동 김진영씨 댁 정원(1967)을 포함하여 성북동 허씨 댁(1994), 성북동 박씨 댁(1994), 한남동 주택(1997), 세기전자 댁(2000), 성북동 한진 댁(2003)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접근하기 어려운 상류층의 주택 정원이다. 공동주택 조경은 허빌라(2000), SK 청암대 빌라(2001),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2003) 등이 있다.

1) 식재 디자인

그의 주택 조경에서 식재는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을 주요 수종으로 수목 고유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면서 공간을 구성하고 연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리기다소나무에 의한 담장연출(평창동 세기전자 댁), 단풍나무로 휴게 공간의 조성(한남동 주택), 산벚나무에 의한 풍성하고 화려한 진입 공간 연출(SK 청암대 빌라), 리기다 소나무에 의한 휴게 공간 조성(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재 디자인은 자연 소재의 질감 및 형태적 조형미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부는 다양한 관목과 지피류를 도입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년초의 식재는 꽃의 색, 형

때,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감각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사려 깊게 시공한다(이교원, 1999). 일종의 현장설계(shop drawing)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식물 소재는 공산품과 같이 그 규격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식재설계라도 식물 소재의 구입과 시공자의 감각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현장설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원 사들이 전통적으로 오랜 숙련을 통한 경험을 중시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이교원 조경의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의 초기 주택 조경은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일본 정원의 모방이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30).

“하루는 건축가 김중업씨가 나에게 향나무는 너무 인위적인 분위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일수록 꾸미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다.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모던함을 점점 추구하게 되었다.”

당대의 건축가 김중업과의 만남은 그의 조경에서 전환점이 된다. 이 후 활발한 주택 조경을 전개하는 시기인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이교원, 1999).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교목과 관목의 자연스러운 배식을 추구하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는 대왕참나무, 매타세콰이어 등의 최소 수종과 수량으로 절제미와 모던함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2 참조).

2)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정원의 주요 시설물은 조형물을 비롯한 점경물, 수경시설, 조명, 벤치, 포트, 애기담 등이며 포장 및 계단의 재료는 주로 석재나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콘크리트 블록이다. 이 콘크리트 블록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폭 500mm, 너비 500mm의 모듈로 직선 기하학의 조합 형태로 도입된다. 모듈화된 직선 기하학은 통일성과 간결성을 주고, 석재와 극적 대비를 이룬다(그림 3 참조). 이교원은 이러한 설계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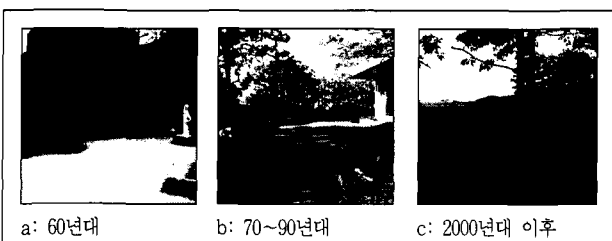


그림 2. 주택 정원 식재설계의 변화

“자연으로 둘러싸인 조경공간에서 같은 자연미라고 볼 수 있는 곡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움과의 대비효과를 위해서 직선을 주로 쓰며 시공의 질도 곡선에 비해 우수하다.”

이렇게 그가 중요한 디자인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대비효과는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주택 조경에서 대비는 공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극적인 효과를 얻는다. 주정은 시야가 트인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되는 반면, 테라스 같은 휴게공간은 아늑하고 위요된 공간으로 대비된다. 비교적 넓고 트인 공간에는 현대적 조형물을 배치하여 초점 경관을 형성하고, 아늑하고 위요된 공간은 주로 전통적 석물을 지피류 식재와 함께 배치한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물성적 대비는 이용자에게 극적인 감흥을 느끼게 하며 각각의 공간이나 물성의 특성을 서로가 강조해준다(김민경, 2006).

이교원의 주택 조경에서 조각 또는 점경물은 정원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초기 작품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SK 청암대 빌라(2001)에서는 이교원 자신이 조형물을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하였고(그림 4 참조),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2003)에서는 조경에 포함된 조형물을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 시공하



그림 3. 주택 조경의 특징



그림 4. SK 청암대 빌라(2001)의 주정과 조각들

었다(이원조경 지명원). 정원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장식적 요소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구상 단계에서 정원과 통합하여 고려한다. 이러한 토탈 디자인(total design) 방식은 높은 완성도와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2. 공공 조경

이교원이 공공 조경에 참여한 것은 1978년에 시공된 극동빌딩 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5년 세종로의 빌딩 조경에서였다. 세종로의 서울신문사 사옥과 대한교육보험 본사 전면광장이 1985년에 만들어졌다. 이후로 조선일보사 사옥(1986),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 사옥 및 기념관(1987), 경주 힐튼 호텔(1989), 아시아시멘트 본사 사옥(1992),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1993),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전면도로(1993), 삼성본관 주변 리노베이션(1997), 삼성생명 종로타워(2000), 서울 파이낸스 빌딩 및 무교공원(2000),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광장 리노베이션(2002) 등 많은 공공조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1989년의 경주 힐튼호텔 조경은 이교원 조경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그의 조경이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주택 위주였는데 비해 공공 조경은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의 작품들은 많이 알려지고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조경진, 2002; 진양교, 2005).

1) 식재 디자인

공공 조경의 식재 디자인은 주택 조경보다 훨씬 단순한 수종과 단순미를 강조하는 식재 패턴을 보인다. 단일 수종의 교목은 화려한 지피류와 대비를 보인다. 교목의 상층부는 캐노피를 형성하고 사람 눈높이의 시선은 개방됨으로써 공간을 확장하고, 통일성과 완결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완결성은 정기적인 전정이나 지피류의 교체 같은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유지된다(그림 5 참조).



a: 조선일보사 사옥의 리기다 소나무와 화려한 지피류
b: 서울 파이낸스 빌딩의 대왕참나무와 관목군식

그림 5. 식재설계의 단순함과 대비효과

수목은 규격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료의 특성상 설계에 적합한 수형과 규격, 필요한 수량의 수목을 수급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른다(정재연, 2004). 이교원은 이러한 식재설계의 제한적 인자를 기회적 요소로 활용하는 설계가의 덕목을 보여준다. 경주 힐튼호텔(1989)의 단풍나무 진입로는 애초에 원하던 수목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다간 형태의 단풍나무를 가로수 개념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이교원, 1999). 삼성생명 종로타워(2000)의 경우는 당초 수종이 은행나무에서 메타세콰이어로 교체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경우이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30). 기존 도심 광장에서 식재를 꺼리던 수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던 정형 식재의 틀을 넘어서 불규칙한 간격으로 식재하여 새로운 식재패턴을 제시한 사례이다. 이렇게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 종로타워와 절묘한 메타포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조경진, 2002).

현재는 보편적인 수종인 소나무도 이전에는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알려져 도심부에는 식재하는 것을 꺼렸다. 대규모 소나무 식재를 최초로 시도한 것도 이교원에 의해 서울신문사 사옥(1985)에서 시작되었다. 또 리기다소나무는 조경수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수종으로 배척되었던 것이었지만 조선일보사 사옥(1986) 전면부에 식재된다. 서울 파이낸스센터(2000)에서는 리기다소나무를 휴게공간에 식재하였다(그림 6 참조). 이전까지 휴게공간은 녹음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활엽수를 심는다는 것이 보편적 식재 방법이었다. 또한 국내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대왕참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으며, 관목으로 분류되어 교목의 하부 식재나 다른 관목과 비슷한 형태로 식재되던 '수수꽃다리'를 교목처럼 모아심기를 시도하였다. 서울신문사사옥(1985)에서 시작된 이 기법은 대한교육보험 본사 광장(1985), 삼성본관 주변 소공원(1997), 파이낸스센터(2000)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모아심기' 기법은 배롱나무(경주힐튼호텔, 1989), 단풍나무(서울 파이낸스센터, 2000), 느티나무(신세계 강남점 리노베이션, 2002; 그림 6 참조) 등 다른 수종으로도 확대하여 시도된다. 이처럼 새로운 수종의 과감한 도입과 새로운 식재 기법의 시도와 실험을 통해 관습적인 식재 기법을 탈피하여 주목 받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이교원 조경을 대변하는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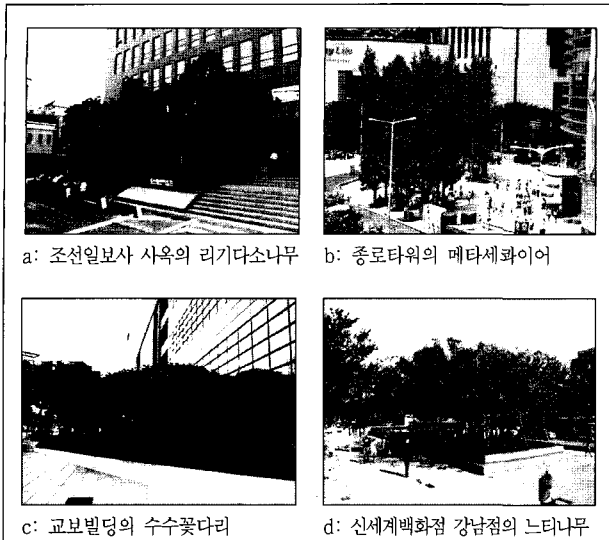


그림 6. 새로운 식재의 실험과 모아심기 사례

2)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공공 조경에서의 디테일은 주택 조경에서와 같이 조형물을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조형물은 주요 공간의 초점 경관으로 강조되어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검토되고 의뢰인에게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한다(그림 7 참조). 또 조명시설, 이동식 화분,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물들과 석재를 주로 한 단순한 패턴의 포장은 통합 디자인되어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공공 조경에서도 주택 정원에서와 같이 직선 기하를 통한 단순미를 추구한다. 플랜터, 계단 등은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공간 분할을 위한 장치로 도입된다. 공간의 시설물은 최소한 기능을 부여하고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여 단순미를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동일 소재 시설물의 반복은 포장과 함께 패턴화되어, 단순한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한다. 서울신문사 사옥(1985)과 조선일보사 사옥(1986), 서울 파이낸스 빌딩,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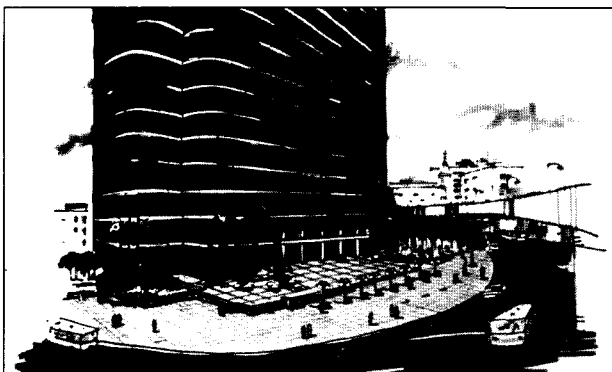


그림 7.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의 스터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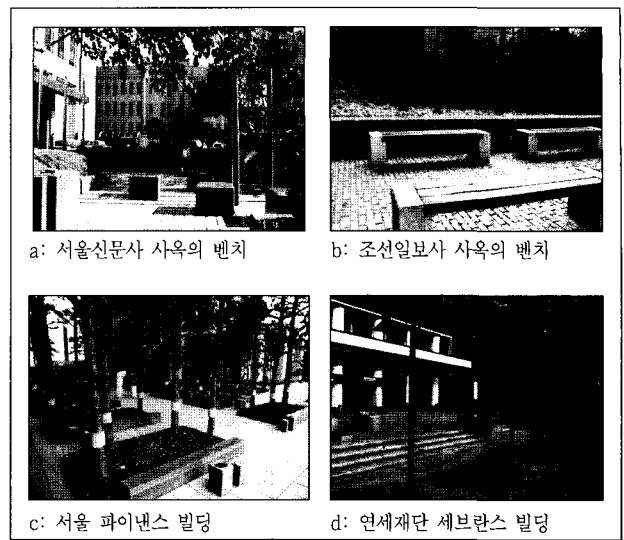


그림 8. 단순, 반복적 시설물 사례

이교원의 최초의 공공 조경 작품인 극동빌딩(1978)은 회양목 군식과 조명등만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여 개방감 있게 비워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비워져 있는 공간의 모듈화된 포장은 공간에 단순하고 절제된 인상을 부여한다(동양시멘트 삼척공장). 대한교육보험 본사 전면광장(1985)은 건물 측면의 녹지대를 제외하고 단순 재료에 의한 포장과 최소한의 그늘 식재, 점적요소로서의 화분 정도만 도입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장소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삼성생명 종로타워(2000)에서는 보행자 눈높이에서는 곧게 뻗은 메타세콰이어의 줄기만 보이게 하여 시선을 열어주고, 광장을 비우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는 이러한 설계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24).

“우리나라 도시가 답답한 이유는 광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장이란 빈 공간이다. 우리나라 법규가 무조건 나무수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무를 심지 않아도 훌륭한 옥외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심어야 할 곳은 심어야 되지만 그만큼 여백의 공간도 중요하다. 특히 대형 건물 앞은 비워두어야 한다.”

이처럼 그가 공공 조경에서 추구하는 미학적 관심은 절제를 통한 여백과 비움의 미학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공공 조경에서도 주택 조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형물을 통한 공간의 강조와 대비 효과를 탐색한다. 조형물은 비움의 공간에 액센트를 주고 미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신문사 사옥(1985), 아시아시멘트 본사 사옥(1992), 서울 파이낸스 빌딩(2000)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비 효과는 이교원의 작품에서 공간 디자인, 식재 설계 등에서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경



그림 9. 단순미와 비우기 전략의 사례

주 힐튼 호텔(1989)의 경우, 진입로의 단풍나무 열식은 공간의 깊이를 주며, 방문자에게는 호텔 전면을 천천히 노출시키면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이교원, 1999; 그림 10 참조). 조선일보 사 사옥의 후정(1986)은 적벽돌 건물을 배경으로 흰 수피의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대비효과를 얻고 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10).

이교원은 소재나 재료의 사용에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한다.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 사옥 및 기념관(1987)의 조각은 폐자재를 재활용한 것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못쓰게 된 기계류에 청소 및 도장을 하여 설치함으로써 시멘트 공장 사옥이라는 고유하고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하였다(이교원, 1999).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리노베이션(2002)에서 철물 플라워 박



그림 11. 새로운 재료의 도입과 디테일 개발

스의 제작, 같은 소재의 배수시설 등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 및 디테일의 사례이다(그림 11 참조).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공간디자인에 비해 플랜터의 디테일(극동빌딩, 대한교육보험 본사 전면광장, 경주 힐튼 호텔)은 사선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종로타워의 메타세콰이어 식재는 일반적으로 광장의 식재패턴으로 활용되던 일정한 간격의 정형 식재가 아니라 불규칙 간격 식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간격이 좁아진 곳의 수목 보호틀은 현장 상황에 맞도록 변경하여 정교한 디테일을 구현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3. 이교원 조경의 생산 방식

이교원은 거의 모든 디자인과 설계 과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 관장한다. 식재를 위한 수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포장이나 계단 등의 디테일, 조형물, 시계탑 같은 시설물 등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테일은 대체로 식물 모델 제작을 통해 연구·개발한다. 그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이교원, 1999).

“조경시설물은 일일이 직접 디자인해 수십 가지의 설계안 중 몇 가지를 선택하는 데 실제 스케일로 종이 모형을 만들고, 그중에서 샘플 제작을 한 후 최종 디테일까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여 완성하는 식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장인적 열정과 실험 정신은 그의 작품이 정교한 디테일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는 바탕이 되었다. 식물 크기의 모델 제작은 주로 시계탑, 가로등, 조형물, 포장 패턴 같



그림 10. 강조와 대비 효과의 사례

은 디테일을 구현하는데 있어 특정 공간에 적합한 스케일을 미리 체험하고 도면에서 미처 파악하기 힘든 스케일감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많은 경험과 시행 착오를 통해 체득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면과 현장의 차이를 보정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원 조경은 설계와 시공 혹은 관리까지 일괄 주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무실 조직은 설계와 시공 일괄 체계(design-build system)를 갖추고 있다. 이원 조경은 설계팀, 관리팀, 공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계팀은 5인 이하의 소수 정예로 구성된 설계실과 경리과도 포함하고 있다. 공사팀은 구조물, 포장, 계단 등의 공종을 맡는 시공 1팀과 식재를 전담하는 시공 2팀으로 구성된다. 관리팀은 공사 중의 관리, 혹은 공사가 완료되고 관리계약이 성사된 작품의 지속적인 조경 관리를 수행한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6.6). 주요 외주업체는 석재업체, 전기업체, 철물업체 등으로 2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이교원, 1999), 실물(1:1 스케일)모델 제작 스튜디오, 새로운 재료의 실험 등이 협력업체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2 참조). 대부분의 시설물들의 제작이나 시공도 이들 협력업체와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작품의 완결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원 조경의 설계는 전통적인 수작업(hand drawing)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말부터 CAD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최종 성과물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작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2). 드로잉은 설계의도를 표현하고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교원(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10)은 “도면에 멋 내고 치장하는 것보다 작품을 직접 완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현장설계(shop drawing)에 가까운 개념으로 시공이 전제된 설계안 작성을 위해 명료한 드로잉을 선호한다. 설계는 시공 위한 스튜디오 과정이거나 도구라는 생각이다(그림 13 참조).

설계와 시공의 일괄 수주를 원칙으로 하는 이원 조경은 이미 인허가 과정을 거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설계 변경작업을 통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단계를 수행하게 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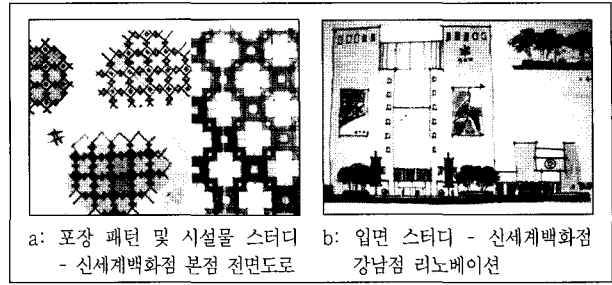


그림 13. 핸드 드로잉에 의한 스튜디오 과정

과정에서 시공 과정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설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24, 2006.5.30).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조경의 경우, 건축 사무실 혹은 건설 회사와 협업하여 기본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실시설계의 단계를 거치고,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전문 시공업체에서 시공하는 방식과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설계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장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의 주체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소통의 단절을 줄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경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식재설계의 경우, 수목 수급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설계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장의 미세한 지형 변화에 따른 대처와 세심한 디테일 구사가 가능해진다(그림 14 참조).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조경은 이교원의 공공 조경 사례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동심원 형태의 디자인이다. 이 경우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원뿔형의 조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례이다(이교원과의 인터뷰, 2006.5.30). 원뿔형의 조형물과 조화되도록 동심원 포장 패턴과 원형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도입하고 디테일한 원형 계단을 도입하였다(그림 15 참조). 이는 시공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일이다.

그러나 조경이 프로젝트의 초기가 아니라, 건축이 착공된 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공개공지는, 지하 구조물 시공이 이루어진 후 식재 토심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레벨 차가 생기고 주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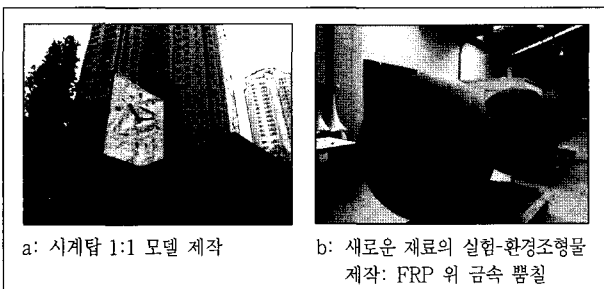


그림 12. 실물 모델 제작과 새로운 재료의 실험



그림 14. 정교한 디테일 시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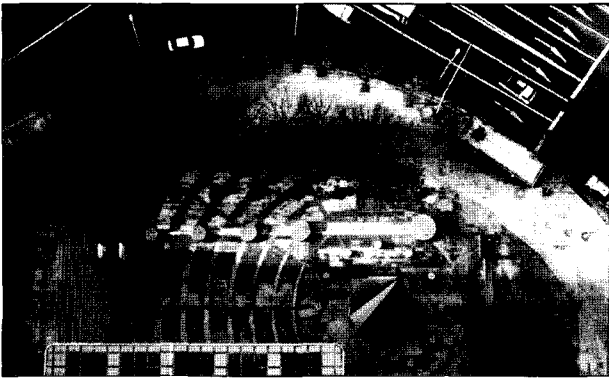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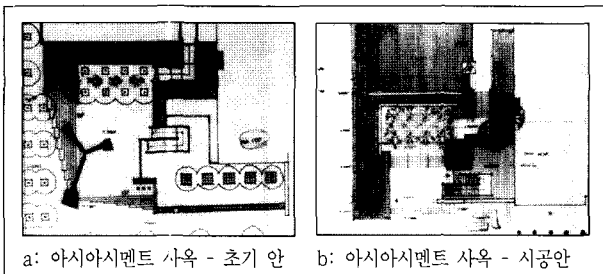


그림 15. 원뿔형 조각물로 인해 변경된 광장계획 변경(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a: 아시아시멘트 사옥 - 초기 안 b: 아시아시멘트 사옥 - 시공안

그림 16. 건축 착공 후 조경설계의 문제

도와 단절된 경우이다. 연세 재단 세브란스 빌딩 공개 공지의 리벨 차이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또 아시아 시멘트 사옥의 경우는 전면광장에 대형 조각물을 설치하고자 했던 구상이 설비 관련 구조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고, 선큰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했으나 식재하중을 고려한 건축 구조가 아니어서 포장과 조경시설물만을 배치하게 되었다(그림 16 참조). 공사 착공 후에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각종 구조물들의 위치나 구조 변경이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조경이 공사 착공시점에서 참여하게 되어 건축과 주변 맥락을 포괄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작업 방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IV. 이교원 조경의 특성과 의미

어떠한 면이 이교원 조경을 독특하고 일관되게 보이게 하고, 그러한 일관된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이교원 조경의 형성 배경과 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고, 한 사람의 일관된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작업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교원의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토탈 디자인과 설계와 시공 일괄 체계(total design

and design-build system) 구축을 통해 작품의 일관성과 정교한 디테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교원의 조경은 공간 디자인에서부터 식재와 시설물, 조형물 등의 세부 디자인까지 토탈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교원 조경의 독특한 기법(craft)이라고 평가되는 정교한 디테일은 공간의 세부이면서 전체가 되는 토탈 디자인 개념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된 디테일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촉각적인(tactile) 장소를 만들어 체험의 질을 높이며 장소의 분위기를 향상시킨다. 또한 이러한 완성적인 초기경관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그의 작품과정에서 설계와 시공 이외에 관리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무실 시스템은 설계와 시공, 관리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교원 자신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장인적 생산 방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수할 수 있는 인적 관계망, 실물(1:1) 모델의 제작, 현장 중시의 설계와 설계 변경(shop drawing),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숙련된 외주업체 등은 이교원의 작품이 있게 한 원동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교원의 작가적 열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조경설계사무실이 설계를 납품하고, 클라이언트가 발주하여 시공자가 시공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이교원의 작업 방식이 시사하는 것은 수준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이 연계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이나 토목과 달리 유기체를 다루고, 같은 설계라도 시공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조경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새로운 소재의 도입과 개발, 새로운 설계의 시도와 실험은 이교원의 독특한 기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이러한 장인적 열정은 실물 모델 제작을 통한 조형물 디자인과 시설물 개발, 폐자재 활용(동양시멘트 삼척 공장 사옥, 1987), 철물 플라워 박스(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002), 수목보호대 제작(삼성생명 종로타워, 2000) 등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이어져 이교원 조경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이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기성제품을 갖다 놓는 식의 일반적인 조경설계사무소의 방식과 차별되는 점이다. 특히 이교원 조경의 가장 큰 특성으로 평가받는 식재 설계의 독자성은 새로운 소재의 도입과 식재 디자인 실험의 결과였다. 조경용 수목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배척되었던 리기다소나무를 과감하게 도입하였고,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어, 대형 수수꽃다리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식재 패턴을 제시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식재 기법은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개별 수목의 '형태미'보다는 단일한 수종이 모여서 이루는 '볼륨감'과 '단순미'를 중시한다. 수목의 집단적 단순미는 현대적 도시경관에 잘 부합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나타내어 장소를 차별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거대해져가는 건축물과 공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잘

부합하였다. 이교원의 새로운 식재설계의 시도와 실험은, 생태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고정적이며 교과서적인 식재설계기법을 반성하고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교원 조경의 미학적 코드는 단순과 절제라고 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련되고 모던한 공간을 조성하여 장소의 차별성을 획득한다. 이는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미학적 가치로 강조와 대비, 반복 같은 디자인 원리를 활용하여 토탈 디자인을 통해 구현된다. 그의 디자인에서 포장된 공간은 묘화화된 그리드 패턴을 기반으로 단순한 소재를 도입하여 절제되고 통일성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바탕을 이룬다. 식재 역시 수종을 단순화하고, 모아심기를 통해 매스(mass)를 강조하여 포장공간이나 건물, 주변 맥락과의 대비를 통해 강조 효과를 얻는다.

이교원 조경의 단순과 절제의 코드는 그가 선호하는 직선과 함께 조경이 인공 환경(manufactured environment)임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건축과도 형태적 동질성을 느끼게 해 주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가 견지하는 단순과 절제의 미학은 공공 조경에서 여백과 비우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비우기는 의도적 전략이다. 그의 비우기 전략은 현대조경에서 추구하는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불확정적 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는 공간은 도시의 상황이 요청하는 것으로 현대조경 설계의 경향(Corner, J., 1999; Wall, A., 1999)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교원은 국내 조경의 도입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동시대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교원 조경의 개념원은 외래사조의 체험과 타 예술 분야의 문화적인 수용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교원은 스스로 그의 초기 주택 조경들이 일본식 정원의 모방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인터뷰(2006.05.02)를 통해 건축이나 다른 예술작품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또 그의 작품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연에 대비되는 직선 기하와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모듈, 위계적이지 않은 구성, 반복적 패턴 등은 피터 워커(Peter Walker)나 마르타 슈와르츠(Martha Schwartz) 같은 미니멀리스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단 카일리(Dan Kiley) 역시 그리드를 주요한 설계적 장치로 활용한 대표적인 조경가이다. 이러한 미니멀리스트들이 추구했던 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측면은 이교원의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그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의 간접 체험들은 -인적 관계망과 해외여행을 통한 사례 답사 같은- 언제든지 설계 개념화하고 형태화(최정민, 1993)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나 캐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의 디자인도 그들의 고유한 발명품이라기보다는 동시대 작가들이 이미 사용해오던 것으로, 이들이 평가받는 것은 이들 형태의 전체적인 조합방식의 탁월성에 있다(Olin, L.,

1988)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교원의 창작행위는 의도적 모방이라기보다는 조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성형적 모방으로 볼 수 있다.³⁾ 그는 외래 사조를 수용하되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실을 수용하여 적합한 소재와 기법을 탐색하고, 현장을 중시하며, 실물 모델 제작, 새로운 시도와 설계적 실험을 통해 우리가 '이교원 조경'이라고 칭하는 독특한 기법(craft)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현장 중심적인 접근방법과 시공을 위한 도구로서의 설계관은 이교원 조경의 창의적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도면에 멋 내고 치장하는 것보다 작품을 직접 완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의 설계관은 설계행위 그 자체가 설계자의 생각을 형태화하고 외면으로 드러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생성적 기능(이상민, 2006)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의 사유와 탐색과정, 설계 방법 등이 담긴 기록으로서 도면은 풍부하지 못하다. 기록의 결핍은 조경가로서 이교원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결과물을 공개된 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작품이 개인의 취향이나 충동적 산물이 아닌 지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일인 관리 시스템 방식의 사무실 운영과 맞물려 그의 작품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평가받는데 걸림돌이 된다. 조경(정원)은 전통적으로 이론(theory)보다는 오랜 시간의 실천적 경험(practice)을 중시(Waker, P.: 2005)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독특한 기법(crafts)을 전수하기 위한 도제식의 반복 훈련이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방식인가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이교원 스스로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은 작품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담보하고, 이교원 조경의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공종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분야 간의 전통적인 업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인 현대조경의 프로젝트에서 그의 작품 생산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 또 건축이 착공된 후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참여하는 조경은 현대조경에서 요구하는 가능자(enabler)나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보다는 모든 것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완성자(master)로서의 조경가의 역할을 고착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이교원 조경의 특성들은 그의 성장 배경과 생애 여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건축가 김수근은 어릴 때 북촌에서 살았던 경험이 조형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고(정인하, 1996), 안도 다다오는 어두컴컴한 장소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의 이미지를 주택 설계에서 연속시켜 보고자 했다고 한다(安藤忠雄, 1986). 이와 같이 축적된 개인의 경험은 설계가에게 있어 일종의 '선형적 도식'이 된다. 어린 시절을 별장에서 보낼 정도의 자산가라고 볼 수 있

는 이교원 개인의 경제, 문화 자본과 그의 인적 연결망, 그 연결망에 연결된 각 사람의 경제, 문화 자본의 총량은 조경가 이교원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된다(Bourdieu, P., 1995). 이는 이교원 조경의 현재가 있기까지 강력한 바탕이다. 그가 지금까지 제도권 방식에 의지할 필요 없이 사적 루트를 통해 수주하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아직 국내의 조경 작품들이 작가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교원의 작품'이라고 실명으로 거론되는 조경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개인의 작품과 작품 활동을 통해 동시대 조경의 단면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경의 현실과 문제를 발견하여 조경작품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 향후 조경분야의 발전과 수준 있는 조경 작품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교원의 조경을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스타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토탈 디자인과 설계와 시공 일괄 체계(total design and design-build system), 새로운 소재의 도입과 설계적 실험, 단순과 절제의 미학, 외래 사조의 체험과 타 예술 분야의 문화적 수용을 통해서이다. 이 가운데 그의 토탈 디자인과 설계와 시공 일괄 체계는 작품의 일관성과 정교한 디테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념적 설계와 디테일 설계를 이원화하는 대부분의 국내 조경사무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테일 설계는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요구함에도 대부분의 조경사무실들은 직원의 트레이닝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계 개념과 표현은 서구 조경의 수준에 견줄 수 있어도 작품의 완성도는 견주기 어렵다. 무심하고 관대한 디테일로는 작품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시대 조경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이교원 조경의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교원의 작업 방식이 시사하는 것은 수준 높은 조경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적 설계와 디테일이 연계되는 토탈 디자인과 설계만큼 시공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설계와 시공이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권 방식에서 조경작품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조경 감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권의 발주 방식도 '조경 턴 키(turn-key)' 같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교원은 지속적인 새로운 소재의 도입과 설계적 실험을 통해 독특한 기법을 만들고 작품의 완성도와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목의 도입과 식재 설계의 시도는 기

존의 고정적이며 교과서적인 식재설계기법을 반성하고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교원 일인 체제의 생산 방식은 그의 작품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평가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현대조경에서 요구되는 분야 간의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조경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경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수용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한계와 비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시대 조경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하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제시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를 지불하면서 그에게 일을 의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국내의 조경분야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그의 열정이 토대가 되었다고 추론된다.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되고 정착하는데 제도적 분야에 기여한 조경가가 있었다면, 이교원은 실천 분야에서 전문업으로서의 조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작가론은 뒷전에서 이야기되거나 회고적 사실의 나열에 그칠 뿐, 학술적, 비판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평가 없이 담론 형성은 불가능하고 담론 없이 새로운 시도나 조경의 영역 확장, 세계적 수준의 조경 작품 만들기는 지난한 일이다.

본 연구는 조경가 이교원을 작품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쟁점으로 드러내고 그의 작품 활동을 비판적으로 인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조경설계 실무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조경의 담론 형성과 정체성 모색, 조경 설계의 발전을 위하여 가능하면 조경가 이교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국내 조경의 도입기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조경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밝힌다.

주 1. 이교원과의 인터뷰는

1차 인터뷰 2006.4.18

2차 인터뷰 2006.5.2

3차 인터뷰 2006.5.10

4차 인터뷰 2006.5.24

5차 인터뷰 2006.5.30

6차 인터뷰 2006.6.6 총 6회에 걸쳐 직원과의 인터뷰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주 2. 현대 조경 실무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2년 신설된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조경 담당 비서관 제도의 도입되고, 1974년 건설법 시행령에 특수 공사로 조경 공사가 삽입되면서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이재근, 2007).

주 3. 의도적 모방은 베끼겠다고 작정하고 모방하는 것이고, 성형적 모방은 작가의 창작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창작과정에서 발전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이규복, 1988).

인용 문헌

1. 강혁(1984) 건축비평의 방법과 유형. 공간 205호.
2. 김민경(2006) 인물포커스 이교원. 건축 6월호. pp. 54-57.
3. 방경란, 최기수(1998) 영국 풍경식 정원가 'Capability Brown'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3): 267-277.
4. 배정환(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양호정(2000)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조경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교원(1999) 작가가 되는 길. 그 멀고도 험한 여정(1)~(3). 환경과 조경. 통권 제 135호~137호.
7. 이규목(1988) 도시환경에서의 전통과 현실: 6개의 이중주. 공간. 8810.
8. 이상민(2006) 설계에서 매체 그리고 서울숲("봄, 조경 사회 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조경. pp. 152-163.
9. 이재근(2007) 조경산업분야의 태동기 이야기. 조경시공 30: 130-137.
10. 정인하(1996) 김수근의 건축론: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서울: 도서출판 미건사.
11. 정재연(2004) 자연을 닮은 정원, 도시를 바꿉니다. 조선일보 2, 24.
12. 조경진(2002) 빌딩속 풍경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환경과 조경 166: 72-77.
13. 조경진(2003)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26-37.
14. 진양교(2005) 어느 조경디자이너에게 보내는 편지. 환경과 조경 201: 148-151.
15. 최정민(1993) 옴스테드 양식이 한국현대조경 작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安藤忠雄(1986) 挑發する箱. 황준 옮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미건사. 1994.
17. Attie, W.(1978) Architecture and Critical Imagination. John Wiley & Sons, Ltd.
18. Bourdieu, P.(1979) La Distinction.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1995.
19. Corner, J. (1999) Recovering landscape as a critical cultural practice. In J.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26.
20. Olin, Lauri(1988) Form, Meaning and Express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Journal, Fall, 1988.
21. Walker, P.(2005) Peter Walker and Partners. London: Thames & Hudson Ltd.
22. Wall, A.(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J.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33-249.

원 고 접 수: 2007년 5월 2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7년 6월 11일
 3 인 의 명 심 사 필